

退溪의 樂貧歌 研究

慶北大 教授 徐 元 燮

《目 次》

I. 序 言	3. 素材
II. 作品攷	4. 形式
1. 樂貧歌 全文	III. 結 言
2. 內 容	

I. 序 言

오늘날 退溪를 「哲學者型的 道學者」로만 規定하고 그의 哲學的 思想的인 體系定立에 단 汲汲하고 있는데, 本稿는 退溪를 「詩人·文學者型的 道學者」로서의 一面을 無視해서는 안된다는 見地에서 그의 詩歌文學의 體系的 定立을 위해서 「退溪의 詩歌文學 研究」의 一環으로 試圖되고 있는 作業의 一部이다.

이미 이루어진 研究로서 作家論은 「退溪의 陶山十二曲 研究」에서 1). 家系 2). 生涯(修學期·出仕期·講學期)를, 「退溪의 琴譜歌 研究」에서 1). 生涯(補充分) 2). 爲人을, 「退溪의 勸義指路辭 研究」에서 1). 健康 2). 學問 3). 著述을 살펴 보았고, 作品論은 「陶山十二曲」「琴譜歌」「勸義指路辭」等を 製作年代 作品紹介 內容 素材 形式 等に 걸쳐 살펴 보았다.

그런데, 樂貧歌의 作者에 대하여 退溪라고 主張하는 이¹⁾와 退溪가 아니라고 主張하는 이²⁾가 있어 그 作者에 대한 說이 明確치 못하다.

本 歌辭는 大學本 靑丘永言에 收錄되어 있는 歌辭인데, 그 作者에 대하여 樂貧歌란 題目 아래 「退溪 或云 栗谷」이라는 記錄이 있고, 또 申意均(1837~?)의 筆寫本인 續箕雅에도 本 歌辭를 退溪作이라 하고는 「未得正本 因人誦傳而書之句 多錯簡」이라고 부연하여 놓았다.

비록 作者에 대한 文獻上的 明確한 記錄이 없다고 하더라도 陶南과 같이 樂貧歌

1) 李相寶 韓國歌辭文學의 研究 p.159 蜃雪出版社, 1974.6.30.
李家源 退溪先生の 文學 韓國의 哲學 4號 1976.5.18.
2) 趙潤濟 韓國詩歌史綱 p.292 乙酉文化社, 1954.9.20.
金思燁 李朝時代의 歌謠研究 p.346 大洋出版社, 1956.6.25.

가 「果然 有名한 退溪와 栗谷의 作이라 한다면 그 文集에는 보이지 안한다 하더라도 그 作者의 이름만으로도 古來 詩歌 評論家의 입에 올랐을 듯한데 아직 寡聞하야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³⁾고 하면서 作者未詳의 歌辭라고 論斷한 것은 너무 지나친 속단이라고 본다.

詩歌作家로서의 退溪의 이름이 詩歌 評論家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退溪는 이미 훌륭한 詩歌를 創作하였고, 또 韓國詩歌에도 깊은 理解와 一家見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陶山十二曲跋에서 「性情에 느끼는 바가 있으면 每樣 詩로 불렀다. 그러나 今詩는 古詩와는 달라 詠頌할 수는 있으나 歌唱하지는 못한다. 꼭 歌唱코자 하면 우리 文字(한글)로써 創作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風俗과 音節이 中國과 다르기 때문이다」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 所不得不然也 ⁴⁾

고 하여 漢詩는 詠頌할 수는 있으나 歌唱할 수는 없기 때문에 萬若 歌唱코자 하면 우리 文字(한글)로 創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實로 이는 唱과 우리 文字로 創作할 必要性을 力說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또 退溪가 歌辭作家로서 定評을 받고 있었다고 믿어지는 記錄을 李晬光(1563~1628)의 芝峰類說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我國歌詞 雜以方言 故不能與中朝樂府比並 如近世宋純 鄭澈所作 最善 而不過膾炙口頭而止 惜哉 長歌則感君思 翰林別曲 漁父詞 最久 而近世 退溪歌 南冥歌 宋純倪仰亭歌 白光弘開西別曲 鄭澈關東別曲 思美人曲 續思美人曲 將進酒詞 盛行於世 他如水月亭歌 歷代歌 關山別曲 古別離曲 南征歌之類 甚多 余亦有朝天前後二曲 亦耳 ⁵⁾

芝峰類說은 그 序에서 밝힌 바와 같이 光海君 6年(1614 A. D.)인 李晬光의 52歲 때의 作으로, 이는 退溪의 死後 44年 卽에 該當된다.

이 때 벌써 退溪의 歌辭가 世上에 盛行했다는 것은 退溪가 歌辭作家로서 이미 定評이 높았다는 것과 作品도 많이 지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기에 大學本 靑丘永言의 「退溪 或云 栗谷」이라는 記錄을 否定的인 面에서 볼 것이 아니라 좀더 肯定的인 面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退溪와 栗谷의 生涯와 樂貧歌의 內容과를 對比해 볼 때 그 作家가 栗谷보다는 退溪라는 것이 더 首肯이 간다.

하기에 本稿에서는 樂貧歌를 退溪의 作이라 看做하고 作品紹介 內容 素材 形式 等

3) 趙潤濟 韓國詩歌史綱 p.292 乙西文化社, 1954.9.20.

4)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三 二十三張.

5) 李晬光 芝峰類說 卷之十四 十三張.

에 걸쳐 살펴 보기로 하고, 特히 素材는 그의 漢詩와도 對比코자 한다

II. 作 品 攷

1. 樂貧歌 全文⁶⁾

第 1 段	이몸이	살되업셔	聖上이	바리시니
	富貴을	下直하고	貧賤을	樂을삼아
	數間	茅屋을	山水間의	지어두고
	三旬	九食을	먹거나	못먹거나
	十年	一冠을	쓰거나	못쓰거나
	分別이	업셔시니	是非을	취알손야
	滔滔	風味를	주로리	취잇스며
	落落	長松을	조흘리	취잇스리
	歷代을	點檢하야	벧入림	혀여보며
	만入을	다이즈니	一身이	閑暇하디
第 2 段	青松亭	下의	혼자	파람하니
	壺裡	乾坤의	夕陽이	거의로다
	逸興을	못이긋여	달말을	놓피것고
	遠近	山川을	一望의	다드러니
	地勢도	조커니와	風景도	그지업다
	霞鷺은	齊飛하고	水天이	一色인져
	南北村	두세집이	暮烟의	잠겨서라
	三山은	어퇴메오	武陵이	여거로다
	無心호	저구름은	翠岫을	잠가잇고
	有意호	갈마기는	白沙의	버터잇다
第 3 段	아침의	키은취을	點心의	다먹근후의
	일업시	눈일먼셔	夕釣을	말나하고
	낙디을	두러메고	釣臺로	나려가니
	흐르느니	물결이요	취노느니	고기로다
	銀鱗	玉尺을	버들움에	껴여들고
	落照	淸江의	興을겨워	도라오며
	山歌	村笛을	漁父詞로	和答하니
	曾點의	詠而歸야	이에서	더럴손야
第 4 段	箕山	潁水의	巢許의	몸이되여
	千駟을	冷笑하고	萬鍾이	草芥로다
	너生涯	淡泊하니	어늬버지	츠조오리
	瓦樽의	濁醪를	瓢杯의	가득부어

6) 本歌는 大學本 靑丘永言에 收錄된 것을 轉載하였다.

春風의	半醉하고	北窓下의	누어시니
無懷氏적	百姓인가	葛天氏적	시절인가
人間	風雨中の	擾亂한	저귀별을
누으면	잠이요	아는듯	모르는듯
黃庭經	손의 쥐고	紫芝曲	노리하니
四皓은	다섯시오	三隱은	너이로다
周時	呂尚도	渭水에	고기 낚고
漢代	諸葛亮은	南陽의	밭을 갈고
이아니	그고지며	니아니	커로런가
사람은	古속이나	뜻지야	다를손나
잇스면	粥이요	업스면	굴물망정
朱門의	벗님니야	이니柴扉	웃지마쇼
狐貉을	모르거든	弊袍을	벗그리랴

第5段 竹杖 芒鞋로 分數디로 집고선고
 千山 萬水の 이리저리 오락가락
 갑업슨 江山風月과 함께 늙조 향노라

2. 內 容

樂貧歌는 製作年代를 알 수 없는 歌辭로, 이는 致仕歸田하여 自然을 벗하며 지내는 江湖에서의 閑情을 노래한 것이다.

이제 그 內容을 文脈에 따라 5段으로 分段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第 一 段>

「이몸이 쓸피업서 聖上이 바라시니
 …… <中略> ……
 만사를 다이즈니 一身이 閑暇하다」

第1段은 出仕하여 聖君을 섬겨 補國安民하다가 年老하여 聖上이 버리니 富貴功名을 下直하고 致仕歸田하여서는 山水 間에 茅屋을 지어두고 安貧一念에 뜻을 두고 是非를 不關하고 自然을 벗하며 지내니 風味를 따를 사람이 없을 程度로 한 몸이 閑暇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第 二 段>

「靑松亭 下의 혼자 파람하니
 …… <中略> ……
 有意한 갈마기는 白沙의 버러있다」

第2段에서는 陶山의 勝景을 描寫하고 있다. 壺裡乾坤 別有天地와 같은 陶山의 勝景을 보니 地勢의 秀麗함과 風景의 佳麗함은 말할 것 없고 王勃의 滕王閣序의 「落霞與孤鶩齊飛 秋水共長天一色」처럼 眼底에 展開된 陶山의 形勢는 마치 三山과 武陵

桃源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第三段〉

「아침의 키은취를 點心의 다먹근후의
.....〈中略〉.....
曾點의 詠而歸야 이에서 더헐손냐」

第3段은 陶山에서의 採山釣水의 生活相을 말하고 있다.

富貴를 冷笑하고 貧寒을 벗어나 安貧樂道의 生活을 하면서 아침에 취나물을 캐어
와서는 點心에 다 먹어 버리고 저녁에는 냇가에 나가서 銀鱗玉尺을 낚아 버들움에 꿰
어 들고는 興에 겨워 山歌 村笛에 漁父詞로 和答하며 돌아오는 生活은 曾點의 詠而歸
에 못지 않음을 노래하고 있다.

〈第四段〉

「箕山 潁水의 巢許의 몸이 되어
.....〈中略〉.....
狐貉을 모르거든 弊袍을 벗그리랴」

第4段은 陶山에서 閒居하는 退溪 自身の 心境을 옛 隱士에 比喻하고 있다. 採山釣
水하며 世事에 不關하고 山居하는 모습은 마치 許由와 巢父와 같고, 술을 마시고 春
興에 半醉하니 이 때가 無懷氏와 葛天氏의 時代인 듯하고, 世上의 煩憂事에 귀기울
이지 않고 學問研鑽에만 精進하는 모습은 四皓와 三隱과 같고, 또 周代의 呂尚과 같
이 釣水하고 漢代의 諸葛亮과 같이 발갈면서, 있으면 죽을 먹고 없으면 굶을망정 朱
門의 벼들을 부르워하지 않고 오직 安貧樂道의 一念에 사로잡혀 있음을 말하고 있다.

〈第五段〉

「竹杖 芒鞋로 分數대로 집고신고
..... 〈中略〉
잡업슨 江山風月과 함께 늙지 흥노라」

第5段은 結이라 할 수 있다.

富貴功名에 뜻을 두지 않고 竹杖芒鞋로 分數에 맞게 살아가며 오직 千山萬水에 逍
遙遊覽하며 自然과 벗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3. 素 材

素材란 넓은 뜻으로는 藝術作品이 아니라 그 作品으로 形像化할 모든 材材 또는
原料. 즉, 어떤 가치 원리에 의해서 統一된 美的形像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형상
에 이르기 이전의 정신적 감각적 모든 재료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藝術的 表現
의 대상인 題材와 表現 수단으로 사용되는 물질적 재료, 즉 媒材의 두가지를 일컫

는다.

소재를 文章에 국한해서 본다면, 文章을 쓰는 主體를 둘러싼 森羅萬象이다. 이 경우 꽃 바다 돌 등의 自然과 社會的 歷史的 사건은 물론이요, 戀愛 信念 번민 不安 理性 등 관념적인 것도 소재가 된다.⁷⁾

樂貧歌에 使用된 素材는 다음 表와 같다.

素 材	江水	人物	釣魚	家屋	山	我	詞曲	술	飲食	興	地名	벗	몸	數字	鳥	衣服	사람	國名
頻度數	9	7	6	6	3	3	3	3	2	2	2	2	2	2	2	2	2	1
素 材	聖上	富貴	貧賤	十年冠	長松	파람	壺裡	乾坤	夕陽	달밭	地勢	村	煙	雲	岫	谷	沙	아침
頻度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素 材	山菜	버들	千鵬	萬鍾	春風	百姓	시경	風雨	잠	黃庭	손	田	(天處)	古今	뚝	竹杖	芒鞋	草芥
頻度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위의 表에 依하면 樂貧歌에 使用된 素材는 모두 52種類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江水·人物·釣魚·家屋 등이 가장 많이 使用되고 있다.

보면, 江水가 9回 使用되고 있는데, 이에 淸江 渭水 萬水 물결 潁水 등과 複合 名詞인 (山)水 水(天) (山)川 江(山) 등이 있다.

이들 江水는 本 歌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詩歌에서 素材로 많이 使用되고 있는 것들이다.

金天澤의 時調에

箕山에 늙은사람 귀는어니 셋뚝튼고
 박소취 평계항고 操狀이 가장놀다
 至수에 潁水淸波는 너러온겨 잇느니

〈歷代時調全書 412〉

라는 것에서 潁水가 使用되어 있고, 松江의 續美人曲에

출하리 물그의가 비걸이나 보자하니
 벚달이야 물결이야 어동경 된더이고
 샹공은 어디가고 벌비탄 걸렸느니
 江天의 혼자셔서 더는휘를 구버보니
 님다히 消息이 더욱아득 혼더이고

고 해서 물결이, 또 蘆溪의 莎提曲에는 渭水 山水 江山 등이 素材로 쓰이고 있다.

水光 山色이 빛노출 다시본듯
 無情호 山水도 有情호야 보이는다...

7) 文德守 世界文藝大辭典 上卷 p.1108 成文閣, 1975.4.20.

退溪의 樂貧歌 研究

碧波 | 洋洋하니 | 渭水伊川 | 아닌게오
 層巒이 | 兀兀하니 | 富春箕山 | 아닌게오……
 三公不換 | 此江山을 | 오늘사 | 아라고야

끝으로 孝宗의 時調에 보면

清江에 | 비듯논소리 | 기무어시 | 우음관디
 滿山 | 紅綠이 | 휘드르며 | 웃논고야
 두어라 | 春風이뎃놀이러 | 우을디로 | 우어라 <歷代時調全書 2, 831>

고 해서 清江이 素材로 使用되고 있음을 본다.

이들 素材들은 退溪의 漢詩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詩題로 「汾川」⁸⁾ 「小川釣魚」 「虛興倉江上」 「黃江舟中喜晴」 「曉發北倉江入峽寄時甫」 等等이 있다.

渭水雄誇遇聖君 桐江奇事動星文
 何如寂寞溪雲裏 魚鳥相親遠世紛⁹⁾

春水船頭綠潑油 晚來貪看戲羣鷗
 不知萬類中何物 更有閒情與汝儔¹⁰⁾

今日天晴暖始生 歸舟搖蕩白鷗輕
 何須更待桃花浪 綠漲仙源正好行¹¹⁾

曉日蒼涼積水空 綠崖躑躅爛茲紅
 却隨漁棹桃源入 難與仙舟巾角同
 關塞極天君向北 家山迎眼我歸東
 定知此後長相憶 努力無虧一贊功¹²⁾

둘째, 人物을 보면 曾點 巢許 無懷氏 葛天氏 四皓 三隱 呂尚 等 七名이 素材로 나타나고 있는데, 實際로 巢許는 堯帝 때의 隱逸高士인 巢父와 許由를 말하고, 四皓는 漢 高祖 때 商山에 隱遁한 四老인 東園公 綺里季 夏黃公 角里先生을 말하고, 三隱은 高麗末의 儒學의 大家이며 高風忠節로 有名한 牧隱 李穡 圃隱 鄭夢周 怡隱 吉再를 말하고 있어 本 歌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人物은 실상은 13名이 되고 있다.

이에 등장된 人物은 本 歌辭 뿐만 아니라 우리 詩歌에서 널리 使用되고 있는 이들이다 蘆溪의 蘆溪歌에 보면

이 湖山 | 形勝은 | 건줄디 | 뇌야업니
 巢許도 | 아닌물애 | 어니節義 | 알리마는. …

8)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十九張.

9)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小川釣魚 三十九張.

10)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虛興倉江上 二十六張.

11)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黃江舟中喜晴 二十六張.

12)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曉發北倉江入峽寄時甫 四十七張.

苔磯 너른돌애 남히베고 누어시니
 無懷氏적 사름인가 葛天氏서 百姓인가
 叢皇 盛時를 다시본가 너기로라

라고 해서 翼許와 無懷氏 葛天氏를 素材로 한 것과, 또 立岩 二十九曲 중 産芝嶺을 보
 면 商山四皓를 노래 한 것이 있다.

産芝嶺 올라오니 一身이 香氣롭다
 四皓 商山도 이芝嶺 아니던가
 山路애 구름이검어시어 으쿠딘줄 모르로다 <歷代時調全書 1,452>

또, 金春澤의 作인 辭說時調와 退溪의 勸義指路辭에서 曾點을 素材로 한 것이 보인다.

洛陽城裏 方春和時에 草木群生이 皆自樂이라
 冠者五六과 童子七八거 나리고 文殊重興으로 白雲峰登臨하니 天門이 咫尺이라 控北三角은 鎮國
 無疆이오 丈夫의 胸襟에 雲夢을 습켜 논듯 九天銀瀑에 塵纒으쓰슨後에 杏花芳草夕陽路
 로 踏歌行休하야 太學으로 도라오니
 曾點의 詠歸高風을 미쳐본듯 하여라 <歷代時調全書 472>

沂水의 沐浴하고 春服을 걸쳐입고
 舞雩의 바람쓰여 曾點을 따라가면
 數仞墻 도라들어 杏壇이 올오리라

<勸義指路辭>

退溪는 그의 漢詩에서도 많은 人物을 詩題 또는 素材로 使用하고 있다.

「與驪州牧李公純訓導李翁遊神勒寺」¹³⁾ 「聚勝亭韻奉別洪公」¹⁴⁾ 「平壤練光亭陪監司尚
 公震夜蔬」¹⁵⁾ 「盤巖先生愛日常用李復古先生韻」¹⁶⁾ 「上盤巖李先生」¹⁷⁾ 「次鄭吉元韻」¹⁸⁾
 「答周景遊世鵬見寄二首」¹⁹⁾ 「次韻答新寧宰黃仲舉」²⁰⁾ 「李大成來訪溪堂」²¹⁾ 「次韻趙松
 岡見寄十二首」²²⁾ 「宋企村純俛仰亭二首」²³⁾ 「次韻金應順秀才」²⁴⁾ 「次韻權生好文」²⁵⁾ 「過
 吉先生閨」 「商山四皓」 「寄趙士敬」等 杖擧키 어려울 程度이다.

이 中에서 「過吉生先閨」와 「商山四皓」와 「寄趙士敬」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3)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一~二張.
- 14)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六張.
- 15)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六張.
- 16)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二十七張.
- 17)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三十七張.
- 18)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三十九張.
- 19)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四十二張.
- 20)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十張.
- 21)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十二張.
- 22)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二十~二十二張.
- 23)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二十七張.
- 24)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三十四張.
- 25)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三十七張.

朝行過洛水 洛水何漫漫
 午憩望鰲山 鰲山巖盤盤
 清流徹厚坤 峭壁陵高寒
 有村名鳳溪 乃在山水間
 先生晦其中 表閭朝命頌
 大義不可撓 豈曰辭塵寰
 千載釣臺風 再使傲東韓
 扶持已無及 植立永堅完
 丈夫貴大節 平生知者難
 嗟爾世上人 慎勿愛高官²⁶⁾

溺冠曾恥事龍顏 應幣還隨兒女間
 尚得高名千載後 應緣當日再還山²⁷⁾

月川趙君捧毛檄 嘗世方圓不相入
 歸來風月滿前川 獨坐欣然尋舊業²⁸⁾

세째, 집에 관한 素材가 6回 使用되고 있는데, 이에는 茅屋 두세집 靑松亭 北窓 朱門 柴扉 등이 그것이다.

이들 素材 亦是 우리 詩歌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다.

孤山の 漁父四時詞 春 其四에 집을 素材로 한 것이 있다.

우논거시	벽구기가	프른거시	버들술가	
漁村	두어집이	내속의	날낙들낙	
두어라	말가흔집 혼소의	은갓고기	뒤노는다	〈歷代時調全書 2, 176〉

또, 蘆溪의 陋巷詞에는

蝸室에	드러간들	잠이와사	누어시랴
北窓을	비겨안자	서비물	기다리니
無情흔	戴勝은	이니恨을	도우는다
終朝	惆悵하더	먼들홀	바라보니
즐기논	農歌도	興업서	들리는다

고 해서 北窓이, 또 作者未詳의 時調에는 茅屋이 素材로 使用되어 있다.

밤의	곳치피고	비즌술	다넛거다
저문고	가진벗이	들흙귀	오마터니
아히야	茅屋의 들도다온다	벗오논가	보아라

〈時調文學事典 863〉

이들 素材를 그의 漢詩에서 찾아 보기로 한다. 茅屋을 素材로 한 漢詩를 보면 退

26)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過古先生間 一張.

27)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商山四皓 四十四張.

28)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寄趙士敏 十四張.

溪의 「獨遊孤山至月明潭因並水循山而下晚抵退溪每得勝境即賦一絕凡九首」 중 「川沙村」과 「壘巖先生來臨溪堂」이란 詩에 茅屋이란 素材가 보인다.

幽篁川沙李文居 平田禾熟好林墟
卜隣我亦專西壑 茅屋中藏萬卷書 29)

溪西茅屋憶前年 溪北今年又卜遷
第一光華老仙伯 年年臨到萬花邊 30)

또, 「閑居次趙士敬具景瑞全舜舉權景受諸人唱酬韻十四首」 중 其八에 朱門을 素材로 한 詩가 있다.

後生必欲令趨徑 何異縫裳誤女攜
不信朱門還待陸 沛然時雨望添蓂 31)

또, 亭子를 두고 읊은 詩로 「聚勝亭」「統軍亭」「溪亭」이 있다.

城中那得盡風流 水遠山長各自由
試問東亭收勝處 一尊堪勸故人留 32)

統軍亭上望江流 天際微茫入海洲
正使燮成春酒綠 古今難盡別離愁 33)

年登何必問家啼 必樂忘飢有此溪
更把小亭安一曲 可憐猶勝樹爲棲 34)

베짜, 釣魚에 관련된 素材가 6回 使用되고 있는데, 이를 보면 夕釣 釣臺 낙대 銀鱗玉尺 고기 등이 그것이다.

松江의 星山別曲에 釣臺와 고기를 素材로 한 것이 있는데, 그 部分을 보기로 한다.

麻衣를 니리초고 葛巾을 기우쓰고
구부락 비기락 보논거시 고기르다……
작마준 늘근술란 釣臺에 세여두고
그아래 비롤여워 갈대로 더져두니
홍노화 익빈취 어느사이 더나판디
環碧堂 농의소리 빅압피 다향누니

이들 素材들은 退溪의 漢詩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詩題로는 「桐江垂釣」³⁵⁾ 「蛇

29)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川沙村 二十九~三十張.
30)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壘巖先生來臨溪堂 七張.
31)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四張.
32)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聚勝亭 五張.
33)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統軍亭 五張.
34)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溪亭 四張.
35)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三十八張.

淵釣魚」³⁶⁾ 「小川釣魚」³⁷⁾ 「富春釣魚」³⁸⁾ 「觀魚石」³⁹⁾ 「岐灘釣魚」⁴⁰⁾ 「釣魚」⁴¹⁾ 「箭灘漁火」⁴²⁾ 「釣磯」 「釣魚」 「黃魚」 등을 들 수 있고, 또 이들을 素材로 한 漢詩는 일일이 枚擧키 어렵다.

이 중에서 「釣磯」 「釣魚」 「黃魚」를 보기로 한다.

弄晚竿仍曩 來多石亦温
魚穿青柳線 蓑帶綠煙痕 ⁴³⁾

淸時多病早投閒 萬事漁竿本不干
小艇弄殘宜月宿 寒絲收罷任風餐
荻花楓葉深秋岸 霧笠蓑衣細雨灘
可笑從前閒失脚 軟紅塵土沒高冠 ⁴⁴⁾

浴水春風雪漲時 黃魚撥撥罟爭施
年荒若信魚來故 一飽何心忍百飢 ⁴⁵⁾

또, 쌍쌍이 고기잡이하던 배들이 해가 저무니 낚싯대를 거두고 柴荊으로 들어가는 景景을 노래한 詩가 있어 보기로 한다.

江中風起雨冥冥 葉上青蛙止復鳴
而而漁舟依別岸 晚來收釣入柴荊 ⁴⁶⁾

다섯째, 山을 素材로 한 것이 6회인데, 三山 箕山 千山과 山(水) 山(川) (江)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詩歌에도 山을 素材로 한 것이 무척 많다.

宋純의 俛仰亭歌를 보기로 한다.

秋月山 머리짓고 龍龜山 夢仙山
佛臺山 魚登山 湧珍山 錦城山이
虛空의 버러거든 遠近 蒼崖의
머문짓도 하도할사

이는 宋純이 그의 故鄉인 潭陽郡 企村에 俛仰亭을 짓고서 그곳 山水의 아름다움을

36)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三十一張.
37)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三十九張.
38)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五十張.
39)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八張.
40)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二十九張.
41)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三十四張.
42)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三十八張.
43)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釣磯 十六張.
44)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釣魚 二十四張.
45)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黃魚 十七~十八張.
46)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七月望日狎鷗亭即事四首 二十一張.

노래한 중에서 潭陽 昌平 珍原 光山 羅州 等地에 있는 산을 노래한 장면이다.

또, 松江의 星山別曲에 (江)山과 箕山을 素材로 한 것이 있다.

人生	世間의	도흔일	하건마는
엇디	훈江山을	가더록	나이너겨.....
箕山의	늘근고블	귀논엇디	깃똥던고
一瓢를	셀틴後의	조장이	더욱눔다

또, 三山과 千山이 素材로 使用되고 있는 것이 李鼎輔의 時調와 孤山의 山中續新曲에 보인다.

江山도	도홀시고	鳳凰臺가	서왔는가	
三山은	半落青天外오	二水는	中分白鷺洲	로다
李白이	이제이셔도	이景밖거논	못쓰리라	<歷代時調全書 99>
엄동이	더나거나	철풍이	어긋가니	
천산	만산의	봄귀운이	어긋였다	
지계를	신도에열고셔	하늘비를	보리라	<歷代時調全書 1,997>

退溪의 漢詩에도 산을 두고 노래한 詩가 많다.

보면, 「踏青登霞山」⁴⁷⁾ 「題周景遊遊清涼山錄後」⁴⁸⁾ 「入清涼山」⁴⁹⁾ 「遊太子山盤石」⁵⁰⁾ 「約與諸人遊清涼山馬山作」⁵¹⁾ 「入山」⁵²⁾ 「讀書如遊山」⁵³⁾ 「金鶴峯韻登拳芝山作」⁵⁴⁾ 「北山行而」⁵⁵⁾ 「過清平山」 「題黃仲舉方丈山遊錄」 「遊山書事十二首」等 산을 詩題로 한 것은 말할 것 없고, 산을 素材로 한것은 枚擧키 어려울 程度이다.

그 중에서 「過清平山」 「題黃仲舉方丈山遊錄」 「遊山書事十二首」 中 「登山」과 「下山」 「望山」 「葛仙臺」를 보기로 한다.

峽東江盤棧道傾 忽逢雲外出溪清
至今人說廬山社 是處君爲谷口耕
白月滿空餘素抱 晴嵐無跡遺浮榮
東韓隱逸誰修傳 莫指微疵屏白珩⁵⁶⁾

方丈仙山非世間 秦皇徒慕漢空罈

47)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三十張.

48)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十五張.

49)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二十九張.

50)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三十九張.

51)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三十一張.

52)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三十二張.

53)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三十四張.

54)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一張.

55)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三十八張.

56)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過清平山 十五張.

不緣變化因丹藥 那得飛昇出紫烟
 感慨躊躇青鶴洞 逍遙游戲大鵬天
 半生未試囊中法 猶幸神遊託巨編 57)

尋幽越澗壑 歷險穿重嶺
 無論足力煩 且喜心期永
 此山如高人 獨立懷介耿 58)

移棲萬仞崖 其下臨無底
 抱病畏處險 頗妨寄衰齒
 儻然下山去 雲林杳幾里 59)

何處無雲山 清涼更清絕
 亭中日延望 清氣透人骨 60)

蒼崖映帶明丹葉 綠水逶迤護白沙
 浴勸一杯勾漏令 三山何許是仙家 61)

여섯째, 詞曲을 素材로 한 것이 3回인데, 이에는 紫芝曲 漁父詞 山歌村笛 등이 있다.

紫芝曲은 商山四皓가 秦의 亂을 避하여 藍田山에 들어가 지었다고 하는 노래로 商山四皓와 더불어 우리 詩歌에 素材로 많이 使用되고 있는데, 歌辭인 鳳山曲과 金昌翁의 時調에 이를 素材로 한 것이 있다.

五絃琴	줄을골라	紫芝曲	노래하니
소금도	醬도없이	종을사	江山이야
비담밥	풀데粥에	배부를사	風景이야
是非榮辱	다더지고	白鷗偕老	하락더니
무삼才德	있다하고	나라조차	아라신고

〈鳳山曲〉

큰나큰	바회우회	비사름이	閑暇롭다
紫芝歌	호曲調를	오날이야	들을던가
이後는	나후나더후니	五皓된가	호노라

〈歷代時調全書 3, 042〉

또, 漁父歌는 假漁翁의 노래로, 이 系統의 作品으로는 樂章歌詞에 收錄된 漁父歌와 李賢輔의 漁父歌 및 尹善道の 漁父四時詞가 있다.

그 중에서 李賢輔의 漁父歌를 보면 12章으로 傳해오던 長歌를 5章으로 줄여서 改作하였는데, 이는 朝鮮朝 末期에 많이 불려진 十二歌詞 속에 들어 있어 一般에게 많이 불려지기도 하였다.

57)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題黃仲舉方丈山遊錄 三十一張.

58)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登山 二十九張.

59)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下山 三十一張.

60)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望山 三十三張.

61)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葛仙臺 八張.

특히 「聾巖은 江湖歌道를 樹立한 唱導者로 後代 學者들에게 많은 影響을 끼친 사람으로 우리 國文學史에서 그 功績이 컸었다. 退溪가 그런 生活을 欽慕하여 漁父詞를 膽寫하여 詠唱하였다」⁶²⁾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또,

退溪는 聾巖과 同鄕人으로 35歲 後輩로서 그를 가장 仰慕하여 「奉酬聾巖李先生靈芝精舍詩」⁶³⁾ 「聾巖先生愛日堂用李復古先生韻」⁶⁴⁾ 「上聾巖李先生」⁶⁵⁾ 「聾巖先生來臨溪堂」⁶⁶⁾ 等等 聾巖을 두고 노래한 漢詩가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豊基郡守 때 聾巖의 漁父歌에 대하여 跋을 썼는데, 거기에서 古來한 漁父歌를 長歌 9章과 短歌 5首로 刪改한 경위와 또 退溪 自身이 이를 등사하여 妓女와 老伶에게 노래케 하여 들었음을 詳細히 밝혀 놓고 있다.

退溪의 漁父詞跋을 보면 다음과 같다.

世所傳漁父詞 集古人漁父之詠 間綴以俗語 而爲之長言者 凡十二章而作者名姓無聞焉 往者 安東府 有老妓 能唱此詞 叔父松齋先生 時召此妓使歌之 以助壽席之歡 愧 時尚小 心竊喜之 錄得其概 而猶恨其未爲全詞也 厥後存沒推遷 舊聲杳不可追 而身墜紅塵 益遠於江湖之樂則 思欲更聞此詞 以寓興而忘憂也 在京師遊蓮亭 常編問而歷訪之 雖老伶韻倡 莫有能解此詞者 以是 知其好之者鮮矣 頃歲有密陽朴浚者 名知衆音 凡係東方之樂 或雅或俗 靡不哀集 爲一部書 刊行于世 此詞與霜花店諸曲 混載其中然 人之曉之於彼則 手舞足蹈 於此則倦而思睡者 何哉 非其人 固不知其音 又焉知其衆乎 惟我聾巖李先生 年踰七十 即投絳高屨 退閑於汾水之曲 屢召不起 等富貴於浮雲 寄雅懷於物外 常以小舟短棹 嘯傲於煙波之裏 徘徊於釣石之上 狎鷗而忘機 觀魚而知樂則 其於江湖之樂 可謂得其真矣 佐郎黃君仲舉 於先生親且厚矣 常於朴浚書中 取此詞 又得短歌之漁父作者十閱 立以爲獻 先生得而玩之 喜極其素尚 而猶病其未免冗長也 於是 刪改補撰 約十二爲九 約十爲五 而付之侍兒 習而歌之 每遇佳賓好景 憑水檻而弄煙艇 必使歌兒並喉而唱詠 聯袂而編躡 傍人望之若神仙人焉 噫 先生之於此 既得其真樂 宜好其真聲 豈若世俗之人 悅鄭衛而增淫 聞玉樹而蕩志者此耶 先生 尚手寫此本 不辱下示 且賁以跋語 愧 身効轉駒 盟寒沙鳥 何敢語江湖之樂 論魚釣之亭子 辭之至再而命之不置 不獲已 謹書所感於其尾 以塞勤命之萬一 東坡所譏以朝市眷戀之徒而山林獨往之語 愧之謂矣 是歲臘月既望 豊其守李滉 拜手敬書于耶齋 ⁶⁷⁾

退溪가 仰慕하던 聾巖의 改刪 漁父詞를 退溪가 그의 樂貧歌에서 素材로 다룬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堂星臣의 陶山別曲에서도 漁父詞를 素材로 한 것이 있다.

그제야	곳초안져	瑤琴을	비겨안고
冷冷한	빗曲調를	주줄이	끌라내야
清涼山	六六歌를	漁父詞로	和答하니

62) 李在秀 尹孤山研究 p.144 學友社, 1955.10.15.

63)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十六張.

64)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二十七張.

65)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三十七張.

66)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七張.

67) 叔均大 大東文化研究院刊 增補退溪全書 五.

이리도흔 無限景을 桃花白鷗 べ알쇼나

이제, 樂章歌詞와 蟹巖 및 孤山의 漁父歌를 각각 그 一章만을 보기로 한다.

雪鬢 漁翁 | 住浦間 ㅎ야셔
 自言 居水 | 勝居山이라 ㅎ노다
 비떠라 비떠라
 早潮 | 纔落거를 晩潮 | 來ㅎ노다
 지곡총 지곡총 어스와 어스와
 一竿 明月이 亦君思 이샷다 68)

雪鬢 漁翁이 住浦間
 自言 居水이 勝居山이라 ㅎ노자
 비떠라 비떠라
 早潮纔落 晩潮來 ㅎ노다
 至知忿 至知忿 於思臥
 倚船 漁父이 一肩이 高로다 <漁父歌九章> 69)

이등에 시름업스니 漁父의 生涯이로다
 一葉 扁舟를 萬頃波애 띄워두고
 人世를 다니갠거니 날가논줄물 안가 <漁父短歌五章> 70)

압개에 안개갠고 된미회 뒤비쨌다
 비떠라 비떠라
 밤물은 거의디고 날물이 미러온다
 至知忿 至知忿 於思臥
 江村 은갠고지 먼빚키 더욱도타 71)

또, 그의 漢詩에 紫芝歌와 漁父를 素材로 한 것이 있다.

碧嶂丹崖削玉成 溪流曲曲抱山清
 臺名莫向癡人說 怕認商山作采榮 72)

漁父當年笑獨醒 何如孔聖戒丁寧
 我來卽柁吟風月 却喜清潭可濯纓 73)

일곱째, 地名을 素材로 한 것이 2회인데, 武陵과 南陽이 그것이다.

武陵은 中國 湖南省 常德府에 있는 地名으로, 이는 晉의 陶潛이 桃花源記에서 武陵桃源이라고 하여 別有天地로 묘사한 가담으로 朝鮮朝人에게는 一種의 理想鄉 또는

68) 李在秀 古典文學選(影印) p.66 東光出版社, 1975.3.1.

69.70) 成均大 大東文化研究院刊 增補退溪全書 五 pp.13~17.

71) 李在秀 古典文學選(影印) p.49

72)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高世臺 三十張.

73)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濯纓潭 十三張.

仙界로 希求 豫찬되어 그들의 詩歌에 武陵 乃至 武陵桃源 等の 素材로 다루어지고 있다.

松江의 星山別曲에

芒鞋물	비야신고	竹杖을	훑더디니
桃花畵	시내길히	芳草洲에	니어세라
달북근	明鏡中	절로그린	石屏風
그림재	버을삼고	새와로	홀피가니
桃源은	여기르다	武陵은	어디메오

라고 하여 武陵이란 地名이 나오고, 作者未詳의 時調에도 이를 素材로 使用되고 있다.

梨花雨	훑더지고	杏花雪이	날닐겨의
靑驢에	술을싱고	어드러로	向향논요
武陵에	봄간다함미	餞送코져	흥노라

〈歷代時調全書 2, 378〉

또, 蘆溪의 嶺南歌에 武陵桃源이란 素材로 쓰인 것도 있다.

列邑	守令이	相國의	法을밧아
愛民	一心이	遠近업시	다갓호니
엇거제	石壕村이	武陵桃源	되엇논가

다음, 南陽은 中國 河東省 南陽府의 地名으로, 이는 諸葛亮이 晝耕夜讀하며 隱居 하던 곳으로 後漢末에 劉備가 諸葛亮을 軍師로 맞이하기 위하여 三顧草廬한 有名한 故事가 있다.

諸葛亮이 南陽에서 밧간 일은 本 歌辭에서도 「漢代 諸葛亮은 南陽의 밧출갈고」라 노래하여 있고, 前出師表와 作者未詳의 辭說時調와 歌辭인 喜雪歌에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

臣本布衣 躬耕南陽 苟全性命於亂世 不求聞達於諸侯 先帝不以臣卑鄙 猥自枉屈 三顧臣於草廬之中 74)

각설 된덕이 관공장비 거느리시고
 계갈양보라고 와룡강거너와룡산너머 남양샤를다다라서 시문을두다리이니 동지너와엿줍논
 말이 선성임이 뒤초당의 줌드러게시오
 동조야 네선성임서시거던 유관장승인이왔서라고 엿쥬어라

〈歷代時調全書 45〉

南陽	臥龍은	偃蹇도	할셔이고
中山	大耳兒할	슈고케	하닷말가
날갓한	南陽人도	大夢을	先覺하니
一堂	風雲이	어나해에	感습할고

〈喜雪歌〉

74) 故事成語辭典 p.133. 學園社, 1961.12.25.

退溪의 漢詩에도 武陵을 素材로 한 것이 있다.

武陵眞愛竹溪名 作屋渠渠訓後生
道統推尊雖已過 人心昏寐豈無醒 75)

여덟째, 富貴 壺裡乾坤 夕陽 등이 各各 1回씩 素材로 使用되고 있다.

먼저 이들을 素材로 한 것을 우리 詩歌에서 찾아 보기로 한다.

作者와 製作年代가 未詳인 惜春詞와 時調에 富貴를 素材로 한 것이 있다.

一幅 齋箋紙에 前生마음 記錄할제
富貴 榮華를 宛然히 그려내니
나았은 書案위에 屏風같이 둘러두고
不出 門前으로 三春이 한가지라 <惜春詞>

富貴을 버리지말아 富貴간디 말단터라
功名도 밧바마라 白眼모런 곳이러라
天爵을 닷가두어라 밧젓쓸디 업스나 <歷代時調全書 1, 285>

또, 壺裡乾坤과 乾坤을 素材로 한 것이 李朝十二歌詞 중의 하나인 白鷗詞와 竹枝詞에 있다.

五柳春光 景조흔데 白馬金鞭 花遊가자
雲沈碧溪 花紅桃 柳綠한데 萬壑千峰 飛泉高라
壺中 天地에 別乾坤이 여기로다 <白鷗詞>

乾坤이 不老月長在하니 寂寞江山이 今百年이라
어이오 이이오 이이오 아아에
一心精念은 極樂 나하무 하하무 하 阿彌像이로고나 <竹枝詞>

또, 夕陽을 素材로 한 것을 還山別曲과 孤山의 漁父四時詞 夏詞 其七에서 보기로 한다.

되롱이 몸의걸고 簑笠을 짓게쓰고
그들을 두러메고 시내로 차자가서
黃犢을 칩터타고 夕陽을 띄여가니
崎嶇 山路의 風景이 多情하다 <還山別曲>

夕陽이 도타마는 黃昏이 갓잡거다
바회우회에 구분길 솔아리 빛거있다
어디서 碧樹鶯聲이 곳곳이 들이는다 <歷代時調全書 1, 568>

이들 素材를 退溪의 漢詩에서 보기로 한다.

75)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閒居次趙士敬具景瑞金舜昂松泉受諸人唱酬韻十四首 五張.

白雲不可贈 青雲不須凌
 富貴等浮烟 名譽如飛蠅
 安能強衰疾 終日受嫌憎
 秋澗下清此 寒崖露稜層
 猿來窺果園 兒去看魚罾
 萬戶人所要 一壑吾猶能 76)

春日幽居好 輪蹄迴絕門
 園花露情性 庭草妙乾坤
 漠漠栖霞洞 迢迢傍水村
 須和詠歸樂 不待浴沂存 77)

夕陽佳色動溪山 風定雲閒鳥自還
 獨坐幽懷誰與語 巖阿寂寂水潺潺 78)

以上에서 本 歌辭에 使用된 素材 중 그 一部를 우리 詩歌와 漢詩에서 찾아 보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特記할 것은 退溪가 平生을 두고 感愛한 梅花가 本 歌辭에서는 한
 번도 素材로 使用되고 있지 않다는 點이다.

退溪가 梅花를 사랑한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심해서 一種의 病的일 程度였다. 그
 는 臨終 直前에도 侍奉者에게 盆梅에 물을 주라고 하였으니 말이다.

辛丑 酉時 終于寢
 是日朝 令侍人灌盆梅 酉初命整臥席 扶起而坐恬然而逝 79)

陶山雜詠并記에 依하면 그는 陶山書堂을 卜築하고 堂舍의 東便에 작은 못을 파서
 그기에 蓮을 심어 淨友塘이라 하고, 또 그 東便에 蒙泉이란 샘을 만들고 샘위의 산
 기슭을 파нат취 觀瀾軒과 가지런히 하고 그기에 壇을 쌓고, 그 위에 梅花 竹 松 菊花
 를 심어 節友社라 했다

堂之東偏 鑿小方塘 種蓮其中 曰淨友塘 又其東爲蒙泉 泉上山脚鑿 令與軒對平 築之爲壇 而
 植其上 梅竹松菊 曰節友社 80)

고 한 記錄으로 보아 그는 梅花를 사랑했고, 또 이에 못지않게 松 竹 菊도 좋아했음
 을 알 수 있다.

이들을 素材로 한 詩題를 살펴보면

76)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秋懷十一首韻王梅溪和韓詩有感仍用其韻 三十五張.

77)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四時幽居好吟四首 四十一張.

78)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山居四時各四吟共十六絕 六張.

79)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七 年譜下 五十八張.

80)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陶山雜詠并記 七張.

「湖堂梅花暮春始開用東坡韻二首」⁸¹⁾ 「望湖堂尋梅」⁸²⁾ 「孤山詠梅」⁸³⁾ 「節友社」⁸⁴⁾ 「梅塢清香」⁸⁵⁾ 「梅梢明月」⁸⁶⁾ 「孤山梅隱」⁸⁷⁾ 「折梅插置案上」⁸⁸⁾ 「得鄭子中書益嘆進退之難吟問庭梅」⁸⁹⁾ 「代梅花答」⁹⁰⁾ 「陶山訪梅」⁹¹⁾ 「再訪陶山梅十絕」⁹²⁾ 「次韻金慎仲落梅」⁹³⁾ 「用大成早春見梅韻」⁹⁴⁾ 「次韻金惇叙梅花」⁹⁵⁾ 「憶陶山梅二首」⁹⁶⁾ 「漢城寓舍盆梅贈答」⁹⁷⁾ 「盆梅答」⁹⁸⁾ 「季春至陶山山梅贈答」⁹⁹⁾ 「次韻奇明彥追和盆梅詩見寄」¹⁰⁰⁾ 「陶山月夜詠梅六首」¹⁰¹⁾ 「郡齋移竹」¹⁰²⁾ 「竹林清風」¹⁰³⁾ 「叢竹」¹⁰⁴⁾ 「恠松」¹⁰⁵⁾ 「梅花」 「觀梅」 「雪竹歌」 「竹林翠烟」 「種松」 「菊送秋霜」 「雪夜松籟」 「次韻謝存齋餉菊」 等이 있다.

이들 중에서 梅 竹 松 菊을 노래한 詩를 各 두首씩 보면 이리하다.

溪邊粲粲立雙條 香度前林色映橋
未怕惹風霜易凍 只愁迎暖玉成消 ¹⁰⁶⁾

至後梅梢意已生 山翁不見佇幽情
多君獨去探消息 吟到黃昏片月橫 ¹⁰⁷⁾

漢陽城中三日雪 門巷來人遠隔絕
病臥無心問幾尺 唯覺衾裯冷如鐵
幽軒綠竹我所愛 夜夜風鳴如憂玉
兒童驚報導我出 携杖來看久嘆息
稍稍埋沒太無端 枝枝壓重皆欲折

- 81)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二十張.
82)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二十五張.
83)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三十八張.
84)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十二張.
85)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三十一張.
86)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四十張.
87)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四十五張.
88)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十二張.
89·90)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十三張.
91)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十八張.
92)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二十四張.
93)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三張.
94)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四張.
95)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五張.
96)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十三張.
97)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十四張.
98)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十四張.
99)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十五張.
100)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十六張.
101)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十九張.
102)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四十四張.
103)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四十張.
104)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二十張.
105)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二十張.
106)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梅花 二張.
107)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觀梅 五十六張.

最憐中有一兩竿 高拔千尋猶抗節
不愁虛心受凍破 無奈老根迸地裂
果果太陽頭上臨 不應彩鳳終無食¹⁰⁸⁾

萬玉森森擢岸邊 寒枝瘦葉搖蒼烟
龍犀虎攫筍競長 雪虐風饑節彌堅
嘯咏誰知喪尹眞 切磋還思衛武賢
安得湖州入神筆 爲寫一幅山家傳¹⁰⁹⁾

嶺上蒼蒼盡對楹 移根何事下崢嶸
山苗任使校長短 院竹何如作弟兄
風雨震凌根不動 雪霜凍裂氣餘清
誰知喜聽茅山隱 壟山和雲有宿盟¹¹⁰⁾

霜露鮮鮮菊萬葩 金風蕭瑟野人家
花中隱逸知人意 歲晚心期詎有涯¹¹¹⁾

地白風生夜色寒 空山竽籟萬松間
主人定是茅山隱 臥聽欣然獨掩關¹¹²⁾

天高霜氣緊 病客若爲留
好古時將晚 懷人道轉悠
拳拳愧無補 逐逐恐成偷
此意騷翁解 將詩餉菊秋¹¹³⁾

漢詩에서의 素材로써 볼 때 退溪가 가장 惑愛한 梅花를 비롯한 竹 菊이 本 歌辭에 서는 한번도 素材로서 取扱되지 않았음이 特異하다고 할 수 있다.

4. 形 式

歌辭의 形式은 그 音數律로써 볼 때 兩班歌辭는 主音數律이 3 4調이고 副音數律이 4 4調인데 比하여 平民歌辭와 內房歌辭는 4 4調가 主音數律이고 3 4調가 副音數律이다.

그리고 結詞形式도 兩班歌辭는 時調의 終章形式처럼 3 5 4 3으로 되어 있고, 平民歌辭와 內房歌辭는 4 4 4 4를 그대로 끝맺고 있다.

이로써 본다면 兩班歌辭와 平民歌辭 및 內房歌辭는 그 主副音數律인 3 4調와 4 4調가 서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結詞形式도 同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注目을 끄는 것은 兩班歌辭는 그 結詞形式의 音數律인 3 5 4 3에서 第2句가 5字 以上을

108)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雪竹歌 三十六張.
109)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竹林翠烟 三十一張.
110)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種松 二十六張.
111)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菊逕秋霜 三十九~四十張.
112)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雪夜松籟 四十張.
113)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次韻謝存齋餉菊 七張.

維持해야 한다는 點이다.

5字 以下 곧 4字가 되면 平民歌辭와 內房歌辭의 結詞形式인 4 4 4 4에 接近하여 이들은 그 區別을 할 수 없게 된다. 兩班歌辭와 平民歌辭 및 內房歌辭의 結詞形式이 一致하지 않기에 歌辭의 概念을 다음과 같이 規定해야 한다.

歌辭는 3 4調 乃至 4 4調를 그 詩想에 따라 制限없이 連續하다가 結詞形式에서 兩班歌辭는 時調의 終章形式과 一致하는 3 5 4 3으로 끝맺고, 平民歌辭와 內房歌辭는 4 4 4 4를 그대로 끝맺고 있는 詩歌이다.¹¹⁴⁾

여기에서 잠깐 前述한 바 歌辭概念의 妥當性 與否를 살펴 보기 위해서 各 歌辭에서 使用되고 있는 音數律 중 그 使用 頻度數에 있어 가장 많이 使用되고 있는 것 3個만을 보기로 하겠다.

○ 兩班歌辭의 境遇

1) 關東別曲	146節	293句	中	34調	183句	44調	39句	24調	22句
2) 思美人曲	63節	126句	中	34調	77句	44調	23句	24調	10句
3) 續美人曲	48節	96句	中	34調	33句	44調	30句	33調	14句
4) 星山別曲	84節	169句	中	34調	115句	44調	17句	24調	13句
5) 太平詞	72節	146句	中	34調	55句	44調	37句	23調	30句
6) 船上嘆	68節	144句	中	34調	51句	44調	38句	23調	17句
7) 莎提曲	86節	181句	中	34調	72句	44調	41句	33調	25句
8) 陋巷詞	77節	157句	中	34調	55句	44調	46句	24調	17句
9) 獨柴堂	123節	255句	中	34調	91句	44調	61句	23調	51句
10) 嶺南歌	56節	114句	中	34調	30句	44調	38句	23調	22句
11) 蘆溪歌	93節	208句	中	34調	64句	44調	59句	23調	39句

兩班歌辭 11篇 總 916節 1,889句 중에서

3 4調	826句
4 4調	...	429句
2 3調	...	159句
2 4調	62句
3 3調	39句

가 된다.

○ 平民歌辭의 境遇

1) 春眠春	65節	130句	中	44調	43句	34調	63句	24調	10句
2) 遶山歌	27節	57句	中	44調	15句	34調	8句	24調	6句
3) 廣大歌	76節	152句	中	44調	73句	34調	67句	43調	9句
4) 기음노래	65節	132句	中	44調	58句	34調	60句	33調	5句

114) 徐元燮 歌辭의 概念攷 月巖朴辰菴博士選曆紀念論叢 1977. 9. 30.

5) 居士歌	57節	114句 中	44調 57句	34調 48句	24調 6句
6) 鳳凰曲	14節	28句 中	44調 24句	34調 4句	
7) 農夫歌	23節	46句 中	44調 31句	34調 12句	24調 1句
8) 花柳歌	46節	92句 中	44調 51句	34調 31句	43調 4句
9) 斷腸詞	45節	91句 中	44調 39句	34調 50句	23調 2句
10) 關東八景	37節	72句 中	44調 47句	34調 19句	
11) 楚漢歌	53節	113句 中	44調 80句	34調 22句	24調 3句

平民歌辭 11篇 總 508節 1,027句 중에서

4 4調……	518句
3 4調……	384句
2 4調……	26句
4 3調……	13句
3 3調……	5句
2 3調……	2句

가 된다.

◦ 內房歌辭의 境遇

1) 老處女歌	61節	122句 中	44調 87句	34調 33句
2) 閨中行實歌	131節	262句 中	44調 216句	34調 43句
3) 庸婦歌	45節	90句 中	44調 70句	34調 20句
4) 恨別曲	115節	230句 中	44調 140句	34調 89句
5) 怨恨歌	132節	264句 中	44調 164句	34調 94句
6) 反花煎歌	114節	228句 中	44調 156句	34調 70句
7) 相思回答曲	36節	72句 中	44調 38句	34調 31句
8) 良辰和答歌	41節	83句 中	44調 52句	34調 28句
9) 花鳥歌	42節	84句 中	44調 68句	34調 15句
10) 달거리	143節	286句 中	44調 174句	34調 102句
11) 春遊歌(二)	91節	182句 中	44調 91句	34調 83句

內房歌辭 11篇 總 951節 1,903句 중에서

4 4調……	1,256句
3 4調……	608句

가 된다.

이에 依하면 兩班歌辭 11篇 중에서 蘆溪의 嶺南歌에서만이 主音數律인 3 4調보다 副音數律인 4 4調가 8회나 더 많이 使用되고 있을 뿐 나머지 10篇의 歌辭에서는 3 4調가 主音數律, 4 4調가 副音數律로 使用되고 있다.

분만 아니라 세번째의 使用 頻度數를 가진 音數律을 보면 2 3調가 159회로 나타나고 있어 兩班歌辭에서 主副音數律 다음에는 2 3調가 가장 많이 使用되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平民歌辭의 境遇를 보면 11篇의 歌辭 중 春眠曲 기음노래 斷腸詞에서만이 主音數律인 4 4調보다 副音數律인 3 4調가 많이 使用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平民歌辭 11篇의 全體 音數律에서 본다면 總 1,027句 중에서 4 4調가 518回로 主音數律의 位置를 固守하고 있고 3 4調가 384回로 副音數律의 位置를 固守하고 있다.

兩班歌辭에서 네번째의 使用 頻度數를 나타내고 있는 2 4調가 平民歌辭에서는 26回로 세번째의 音數律로 나타나고 있다. 또, 內房歌辭에서는 總 1,903句 중에서 4 4調가 1,256句로 主音數律로서 確固不動의 位置에 있고 副音數律인 3 4調는 608回로 主音數律의 半程度로 使用되고 있을 뿐이다.

音數律으로써 歌辭를 볼 때 內房歌辭는 거의 主副音數律인 4 4調와 3 4調로 構成되고 있어 兩班歌辭와 平民歌辭보다 더 整齊되고 또 單純한 詩型이라 할 수 있다.

兩班歌辭와 平民歌辭 및 內房歌辭를 通觀할 때 歌辭의 音數律은 主로 3 4調乃至 4 4調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 든 作品의 例證에서 兩班歌辭 10篇과 平民歌辭 3篇 計 13篇 歌辭에서 主音數律이 3 4調이고 副音數律이 4 4調로 되어 있고, 또 이와는 反對로 內房歌辭 11篇 全部와 平民歌辭 8篇과 兩班歌辭 1篇 計 20篇의 歌辭에서 主音數律이 4 4調이고 副音數律이 3 4調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結詞形式에서도 兩班歌辭와 平民歌辭 및 內房歌辭가 同一하지 않고 差異가 있다고 하였는데, 作品에서 보기로 한다.

○ 兩班歌辭의 境遇

1) 明月이	千山萬落의	아니비취디	얼다	〈關東別曲〉
3	5	5	2	
2) 날이야	날인줄모르셔도	내님조처럼	흥노라	〈思美人曲〉
3	7	5	3	
3) 각시님	들이야쿠니와	구준비나	되소서	〈續美人曲〉
3	6	4	3	
4) 춘이셔	主人드러닐오디	그더귀가	흥노라	〈星山別曲〉
3	7	4	3	
5) 우리도	聖主올피옵고	同樂太平	흥오리라	〈太平詞〉
3	6	4	4	
6) 알피에	저술이플은쇠되도록	할피되셔	늘그리라	〈莎提曲〉
3	9	4	4	
7) 그밖거	남은일이야	살긴디르	살렷노라	〈陋巷詞〉
3	5	4	4	
8) 聖代	侮不揚波물	다시보려	흥노라	〈船上歎〉
2	5	4	3	
9) 獨樂堂	淸風은	가업실가	흥노라	〈獨樂堂〉
3	3	4	3	

- 10) 이몸은 이江山風月 늘글주를 모르로라 <蘆溪歌>
 3 6 4 4
- 11) 中心에 그리온적이어든 보옵고자 흐노라 <嶺南歌>
 3 7 4 3

兩班歌辭 11篇의 結詞에 있어 各句에 使用된 字數를 統計내어 보기로 한다.

句別 字數	第 1 句	第 2 句	第 3 句	第 4 句
2	1			1
3	10	1		6
4			9	4
5		3	2	
6		3		
7		3		
9		1		

○ 平民歌辭의 境遇

- 1) 그제야 넘을다시 만나 백년살려 하노라 <春眠曲>
 3 6 4 3
- 2) 일출낙조가 눈알에 버려니 경계무궁 종을시고 <遊山歌>
 5 6 4 4
- 3) 알고도 못행하니 어찌아니 답답하리 <廣大歌>
 3 4 4 4
- 4) 箕山潁水 예아닌가 別有天地 여기르다 <處士歌>
 4 4 4 4
- 5) 이세상 다진커든 후생길을 다끄리라 <居士歌>
 3 4 4 4
- 6) 매양愁心 무삼일고 좋이좋이 맞으려문 <鳳凰曲>
 4 4 4 4
- 7) 광광짓는 네소리에 사람의精神을 놀래는도다 <農夫歌>
 4 4 6 5
- 8) 아마도 애향은 松竹인가 하노라 <花柳歌>
 3 3 4 3
- 9) 中天에 외기력아 消息이나 儻하여라 <斷腸歌>
 3 4 4 4
- 10) 이좋은 강산풍경 아니올고 무엇을할거나 <關東八景>
 3 4 4 6
- 11) 팔년몽진 대공업이 숙걸던이 되리르다 <楚漢歌>
 4 4 4 4

平民歌辭 11篇의 結詞에 있어 各句에 使用된 字數를 統計내어 보기로 한다

退溪의 樂貧歌 研究

句別 字數	第 1 句	第 2 句	第 3 句	第 4 句
3	6	1		2
4	4	8	10	7
5	1			1
6		2	1	1

◦ 內房歌辭의 境遇

- 1) 아마도 모진목숨 죽지못해 원수로다 <老處女歌>
3 4 4 4
- 2) 못한일을 悔改하여 銘念일을 조심하라 <閩中行實歌>
4 4 4 4
- 3) 오른말을 들었거든 행하기를 위업하소 <庸婦歌>
4 4 4 4
- 4) 이내마음 생각하니 글이나 배웠드면 <恨別曲>
4 4 3 4
- 5) 휘썰어 덜어두고 내배필 천성일세 <怨恨歌>
3 4 3 4
- 6) 格을알아 노는擧動 所聞이나 들어보소 <反花煎歌>
4 4 4 4
- 7) 수月某日 明月夜에 아모조록 외오리라 <相思回答曲>
4 4 4 4
- 8) 百年偕老 자손만당 富貴功名 하오리라 <良辰和答歌>
4 4 4 4
- 9) 三千甲子 東方朔은 碧桃花를 벗을한다 <花鳥歌>
4 4 4 4
- 10) 덧없이도 돌아오니 무정세월 약유파라 <달거리>
4 4 4 4
- 11) 명년삼월 오거든 다시 한번 하여보세 <春遊歌二>
4 3 4 4

內房歌辭 11篇의 結詞에 있어 各句에 使用된 字數를 統計내어 보기로 한다.

句別 字數	第 1 句	第 2 句	第 3 句	第 4 句
3	2	1	2	
4	9	10	9	11

위에서 든 結詞形式의 作品 例示와 各句에 使用된 字數 統計에 依하면 兩班歌辭 11篇의 第1句는 3字가 10篇이고 第2句는 10篇이 5字에서 9字로 使用되고 있으나 오직 獨樂堂에서 단 3字로 되어 있어 所謂 筆者가 主張하는 變型(格)歌辭이고, 第3句와

第4句에서는 時調의 終章 3句와 4句처럼 4字와 3字를 나타내고 있다.

平民歌辭 11篇에서는 第2句에서 9篇만이 3字와 4字로 變型을 維持하고 2篇이 時調의 終章 第2句와 같이 5字 以上으로 되어 있어 平民歌辭는 第1句의 3字와 함께 正型(格)의 殘痕이 엿보인다.

이에 比하여 內房歌辭 11篇에서는 時調 終章形式인 第2句의 5字 以上 字는 1篇도 없고 全篇이 變型(格)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兩班歌辭·平民歌辭·內房歌辭의 音數律과 結詞形式을 살펴 본 결과 本項 冒頭에서 言及한 바 있는 歌辭의 概念이 妥當한 것임이 밝혀진 셈이다.

이제, 兩班歌辭의 主副音數律과 結詞形式이 平民歌辭와 內房歌辭의 主副音數律과 結詞形式과 差異가 있기에 이를 念頭에 두고서 退溪의 樂貧歌의 音數律과 結詞形式은 어떠한가를 보기로 하겠다.

樂貧歌는 48節 96句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音數律은 다음과 같다.

音 數 律	23調	24調	32調	33調	34調	35調	43調	44調
樂 貧 歌	14	3	1	3	59	2	1	13

위의 圖表에 依하면 本 歌辭는 96句로 構成된 중에서 34調가 59句로 가장 많은 使用 頻度數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이 23調의 14句, 44調의 13句의 順으로 使用되고 있다. 하기에 本 歌辭의 主音數律도 他 兩班歌辭의 主音數律과 같이 34調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本 歌辭에서 特異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兩班歌辭의 副音數律이 44調인데 比하여 本 樂貧歌에서는 오히려 23調가 副音數律로 使用되어 있고 44調가 세번째의 使用 頻度順으로 밀려났다는 點이다.

그렇다면 退溪의 他 歌辭에는 그 音數律과 結詞形式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作品名	節數	句 數	23調	24調	32調	33調	34調	35調	36調	43調	44調	音數律數
琴譜歌	65	130	5	13		3	86	2		1	20	7
勸義指路辭	144	292	17	11		7	196		1	1	59	7
樂貧歌	48	96	14	3	1	3	59	2		1	13	8
計	257	518	36	27	1	13	341	4	1	3	92	

이에서 보면 琴譜歌와 勸義指路辭는 7個의 音數律로 構成되어 있고, 樂貧歌는 이보다 1個가 많은 8個로 짜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3篇 辭歌에 다 使用되고 있는 音

數律은 2 3調 2 4調 3 3調 3 4調 4 3調 4 4調의 6個이고, 3 5調는 琴譜歌와 樂貧歌에서, 3 6調는 勸義指路辭에서, 3 2調는 樂貧歌에서만 使用되고 있을 뿐이다.

3篇의 歌辭가 모두 7,8個의 音數律로 構成되어 있어 他 作家의 歌辭에서 보다는도 훨씬 少數의 音數律로 짜여져 있어 形式美에 있어 優秀한 作品이라고 할 수 있는 點은 同一하나 2 3調가 琴譜歌에서는 2 4調 다음에 비껴나오, 勸義指路辭에서는 세번째로 使用되고 있음에 비해서 本 歌辭에서는 4 4調를 제치고 兩班歌辭의 副音數律로 使用되고 있는 點은 이 歌辭에서 만이 찾아 볼 수 있는 特異한 形式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本 歌辭의 結詞形式을 보기로 하겠다.

잡업은 江山風月과 한계늘조 한노라
 3 5 4 3

樂貧歌의 結詞形式은 3 5 4 3으로 되어 있어 이는 時調의 終章形式과 一致하는 正型(格)歌辭이다.

以上에서 論述한 兩班歌辭·平民歌辭·內房歌辭의 音數律과 結詞形式을 本 樂貧歌와 對比해 볼 때 本 歌辭는 그 音數律에 있어서 主音數律은 3 4調이나 副音數律은 他 歌辭와는 判異하게 2 3調가 4 4調 代身에 副音數律로 되어 있어 좀 特異한 音數律로 構成된 歌辭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結詞形式만은 兩班歌辭의 規範이 되는 3 5 4 3으로 되어 있어 時調의 終章形式과 一致하는 正型(格)歌辭임을 볼 수 있다.

Ⅲ. 結 言

以上에서 論述한 바를 要約해서 結論을 삼고자 한다. 言序에서 밝힌 바와 같이 本稿는 退溪를 「詩人·文學者型的 道學者」라는 面을 強調하는 同時 그의 詩歌文學의 體系의 定立을 위한 「退溪의 詩歌文學 研究」의 一環으로 試圖되고 있는 作業의 一部이다.

또, 本 歌辭의 作者에 대하여는 退溪라고 하는 主張과 退溪가 아니라고 하는 主張이 있어 一般적으로 作者未詳의 歌辭로 取扱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筆者는 大學本 靑丘永言과 申意均의 續箕雅에 退溪作이라는 記錄과 李暉光의 芝峰類說에서 退溪를 歌辭作家로서 높이 評價한 點 等으로 보아 이를 退溪의 作으로 看做하고 本稿를 作品紹介 內容 素材 形式 等에 걸쳐 살펴 보았다. 特히 素材는 他 詩歌와 또 그의 漢詩와를 對比해 보았다.

1. 樂貧歌는 그 全文을 大學本 靑丘永言의 것을 轉載 紹介하였다.
2. 本 歌辭는 創作年代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이는 致仕歸田하여 自然을 벗하며 지내는 江湖에서의 閑情을 노래한 것이다.

作品은 그 內容을 便宜上 5段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3. 樂貧歌에 使用된 素材는 모두 52種類이고, 그 중에서 江水 人物 家屋 釣魚 山 詞曲 地名 富貴 壺裡乾坤 夕陽 等に 대하여는 우리 詩歌와 그의 漢詩에 使用된 素材와를 對比해 보았다. 그 結果 本 歌辭에 使用된 素材들은 다른 詩歌와 그의 漢詩에도 잘 쓰여진 素材들이었다.

4. 素材面에서 特記할 점은 退溪가 臨終 直前까지도 侍奉者를 시켜 盆梅에 물주기를 당부할 程度로 酷愛한 梅花와 竹 菊이 그의 漢詩에서는 많이 詩題와 素材로 取扱되었는데 比하여 本 歌辭에서는 全然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點이다.

5. 形式에 있어 먼저 歌辭의 概念부터 規定하였다. 곧, 歌辭는 34調 乃至 44調를 그 詩想에 따라 制限없이 連續하다가 結詞形式에서 兩班歌辭는 時調의 終章形式과 一致하는 3 5 4 3으로 끝맺고, 平民歌辭와 內房歌辭는 4 4 4 4를 그대로 끝맺고 있는 詩歌이다. 라고

6. 概念의 妥當性 與否를 糾明하기 위하여 兩班歌辭 平民歌辭 內房歌辭 各 11篇을 가지고 全音數律과 結詞形式을 살펴 보았다.

그 結果 兩班歌辭는 그 音數律이 34調이고 副音數律이 44調로 되어 있음에 反하여 平民歌辭와 內房歌辭는 그 主音數律이 44調이고 副音數律이 34調로 되어 있었다.

또, 結詞形式은 兩班歌辭가 時調의 終章形式과 一致하는 3 5 4 3으로 되었는데 反하여 平民歌辭와 內房歌辭는 4 4 4 4로 되어 있었다.

7. 本 歌辭는 48節 96句로 그 音數律은 8個인데, 그 중에서 34調가 59句, 23調가 14句, 44調가 13句의 順으로 使用되고 있어 그 主音數律은 他 兩班歌辭처럼 34調로 되어 있으나 副音數律은 兩班歌辭의 副音數律인 44調를 제치고 23調가 副音數律로 되어 있는 것이 本 歌辭만의 特色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結詞形式만은 時調의 終章形式과 一致하는 3 5 4 3으로 되어 있어 正型(格)歌辭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8. 退溪의 作인 琴譜歌 勸義指路辭 樂貧歌의 音數律을 對比해 보았다.

그 結果 琴譜歌는 그 音數律이 7個로, 34調가 86句, 44調가 20句, 24調가 13句의 順으로, 勸義指路辭도 7個로, 34調가 196句, 44調가 59句, 23調가 17句의 順으로, 樂貧歌는 8個로, 34調 59句, 23調가 14句, 44調가 13句의 順으로 構成되어 있었다.